

9월 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중국에 발목.. 다우 0.5%↓</p>	<p>뉴욕증시가 31일(현지시간) 중국발 악재로 8월 마지막 거래일을 약세로 마감했음. 월간으로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았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47.92포인트(0.5%) 하락한 9,496.2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71포인트(0.97%) 떨어진 2,009.0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31포인트(0.81%) 밀린 1,020.62를 각각 기록했음.</p> <p>중국증시 급락이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우려감으로 변지면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뉴욕증시에서는 상품·에너지주가 하락하며 지수를 압박했음. 또 6개월 연속 상승으로 가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모간스탠리와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강등과 차익실현 권고가 이어져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음.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의 하락세를 되돌리기에는 힘이 부족했음. 다만, 하루뒤 발표되는 공급관리자협회(ISM)의 8월 제조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매수가 일부 유입돼 지수들은 오후들어 낙폭을 다소 줄였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의 업종 대표주 가운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11개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 종목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음.</p>
<p>美 시카고 제조업 경기 `예상보다 더 개선`</p>	<p>시카고 지역의 제조업경기는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주식 시장의 약세 분위기에 파묻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는 8월 구매관리지수(PMI)가 전월 43.4%보다 상승한 50%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시카고 PMI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며, 기준인 50%를 넘으면 경기확장을, 반대인 경우엔 경기위축을 의미함. 이에 따라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국면에서 벗어나 확장국면 바로 직전까지 개선됐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8월 시카고 PMI는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상회했음. 블룸버그통신이 5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8월 시카고 PMI가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었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70달러 무너져..중국발 충격	국제유가가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선 밑으로 떨어졌음.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78달러(3.82%) 급락한 69.96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초 장중 배럴당 75달러선까지 치솟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한주 동안 1.6% 하락하며 지난주말 72.74달러로 마감했음. 국제유가는 이날 급락으로 8월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월간으로 간신히 0.7% 상승했음.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원유시장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었음. 최근 유가와 증시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동일한 흐름을 보여왔음. 특히 중국이 원유와 원자재의 주요 소비처인 상황에서, 중국증시가 6.7%나 급락하며 경기회복 지연 우려감을 자극한 점이 크게 작용했음.
중증시 `도깨비 장세`..8월 하락률 10개월래 최대	상하이 종합 지수는 31일 5.7% 급락하면서 지난 5월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음. 이번 달 들어서만 21% 급락, 하락률은 지난해 10월(25%)에 근접하고 있음. 이 지수는 은행들이 자산 거품을 우려해 대출을 조이기로 결정하고, 중국 정부가 철강 및 시멘트 산업에서 설비과잉을 제한키로 하면서 지난 4일 15개월래 최고치로부터 24% 밀렸음. 선인왕귀증권의 치엔치민 대표는 "유동성 우려, 과도한 주식 공급, 투자심리 악화 등 이미 오랜 악재가 증시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음.
인도 1분기 성장률 6.1%..`부양책 효과`	인도 경제는 몬순 때문에 가뭄이 심화되며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양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임. 인도 정부는 이 기간동안 제조업 부문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음. 반면 농업 생산은 연율 2.4% 증가. 인도 경제는 지난 3월로 끝난 회계연도 6.7% 성장. 앞선 3년간 평균 9%대였던 성장률에 크게 못미쳤음. 지난 회계 4분기(1~3월) 성장률은 5.8%였음. 이코노미스트들은 가뭄으로 인해 올 회계연도 성장률이 1~2%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중앙은행은 지난 주 가뭄이 성장 둔화보다는 인플레이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韓, 2050년 잠재성장률 1.5~2% 추락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내일(1일) '제 15회 통계의 날'을 맞아 대전 통계센터내 대강당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기성장 추세를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IMF와 KDI 등 국내외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50년경에는 1.5~2%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주요 경제변수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주제로 강연하는 백 교수는 "지난 반세기동안 선진국형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등 사회지표도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OECD 평균을 웃도는 노동시간, 소득불균형 문제, 부패인식지수 및 경제자유도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